

대한주택건설협회 연탄나눔 활동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박재홍)는 최근 (주)영무건설, 모아건설(주), 고운주택(주), (주)리젠시빌주택, 대성건설(주) 등 회원사와 연탄나눔 활동을 펼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공>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시설 위문품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20여명은 14일 송년 행사로 목포 지역 아동복지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봉사를 벌였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광주 평등농협 소외이웃에 김장김치 전달



광주 평등농협(조합장 김익찬) 임직원과 부녀회·농가주부·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최근 직접 담근 김치 250상자를 지역 경로당과 소외계층가정에 전달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안국산업 곡성휴게·주유소 이웃돕기 후원금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주유소(대표 김성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담양 예수마을의 집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주유소 제공>

아내와 사별 20년... 눈물의 詩로 읊는 고해성사

강성수 시인 700여 편 묶은 장편서사시집 펴내
잠잘 때 아내 베개 옆에 두고 여행 땀 아내 사진 목에 걸어
“팔순 가까워도 그리움만 쌓여... 배우자 소중함 깨달았으면”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며 20년째 눈물로 시를 쓰는 이가 있다. 현대문 손애보의 주인공은 시인 강성수(77·필명 강산애늘봄장차) 씨. 강 씨는 최근 아내(나경애)를 그리워하며 쓴 700여 편의 시를 묶은 장편서사시집을 발간했다. ‘우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사랑으로 다시 만나랴’(서석)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한편의 비극적 드라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20년이 지났지만 갈수록 그리움이 쌓여갑니다. 생전에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날의 아픔, 슬픔, 그리움, 기다림이 뜨거운 가슴에 화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백년가약을 맺는 부부의 연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말한다. 불가에서는 팔천 겁의 인연을 지어야 부부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 시인에게 부부의 연은 “이성지합(二姓之合)이 아닌 영혼의 결합인 혼인(婚媾)”이다. 문학사를 보면 부부간의 이별과 사별의 정

한을 다룬 작품이 더러 있다. 이 경우 남자를 떠나보낸 여자의 비통한 심사를 담아낸 글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자의 정한과 애환함도 여자 못지않게 깊고 애틋하다는 것을 강성수 씨의 시는 보여준다. 무엇보다 700여 편의 시는 보통의 시집 10권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단일 주제로 엮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한 편, 한 편의 시들은 아프면서도 무겁게 다가와 읽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광주 광산이 고향인 강 씨는 27세에 종매로 아내와 결혼했다. 광산구의 진주 강씨 16대 종가로 시집을 온 아내는 농사일과 집안 허드렛일 등을 도맡아하며 적잖은 고생을 했다. “살만하니까 병이 오더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아내는 그만 중병(암)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시를 읽다 보면 작품이 모두 ‘아내에게 바치는 고해성사’로 다가오는 이유다.



“삼우제를 지내며 묘소 앞에서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아내의 일생을 소재로 한 시들을 책으로 엮어 바치겠노라고요.” 그러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올해 여름 더 늦기 전에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정수리를 파고들었다. 그에게 새장가를 가라고 종매를 한 지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강 씨는 “아무리 옆에서 선을 보라고 재근을 했지만 일체 거절했습니다”며 “행여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꿈에라도 나타나실 것 같아 그렇게 20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언젠가 제 아들이 혼자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만남을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 엄마가 내 가슴에 있는데 나

는 그러지 못한다면 거짓이었지요.” 강 씨는 지금도 잠을 잘 때 아내 베개를 옆에 둔다. 여행을 갈 때도 아내 명함판 사진을 목에 걸고 간다. “항상 모든 것을 안사람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큰아들 내외와 20여년 같이 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손주들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기에 더더욱 아내의 반자리가 크게 다가온다. 750페이지에 달하는 시집에는 ‘화장’, ‘입관’, ‘암치료’, ‘부고’, ‘저승에서’ 등 아내를 떠나보낸 당시의 심경을 읊은 시와 ‘아내가 써 두고 간 편지’, ‘부탁’, ‘기도문’ 등 이별 뒤의 기다림을 소재로 한 시들이 대부분이다. “흔히 되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그저 그런 빈말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반쪽인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라벌예대(현 중앙대 예술대)를 졸업한 강 씨는 1966년 김광섭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에 시로 등단했다. 한 때는 전남의 오지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가 필명으로 쓰는 ‘강산애늘봄장차’는 시인인 큰딸 ‘강산애꽃나비씨’가 지어주었다. 다른 자녀들 이름도 ‘강나비’, ‘강나리’, ‘강모세’로 모두 우리 말 이름들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정광고 ‘선플한마당의 날’ 행사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원일) 정광고등학교(교장 임형철)는 지난 13일 강당인 톨비니관에서 학교·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제3회 광주지역 선플한마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정광고 학생 1189명과 교직원 70명 및 내빈이 참여한 이 행사는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과 왕따를 추방하고,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정광고 학생들은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

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악성 댓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 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 학생들은 ‘인터넷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은 존중과 배려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이어주는 선플, 행복을 이어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 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등의 팸플릿을 준비해 내빈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전은재기자 ej6621@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 제3기 발대식 열려

(재)광주비엔날레가 뉴미디어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의 제 3기 발대식이 16일 광주비엔날레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는 전광미 홍보마케팅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인호 정책기획실장의 광주비엔날레 창설 배경 및 파급효과 강의, 조재도 미디어강사의 UCC 제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서포터즈는 젊은이

들이 함께 참여해 SNS를 통해 광주비엔날레를 알리고 UCC 제작 등을 하면서 예술로 소통하고자 기획했다. 서류 심사를 거쳐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발된 20여명의 제 3기 온라인 서포터즈는 이날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간 광주비엔날레 홍보 도우미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형렬 전남도립대 교수 美 인명사전 등재

백형렬(사진)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와 겸임교수가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터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 미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인명기판이다.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



으로 꼽힌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에 대한 SCI논문과 국내 다수의 우수 논문 발표 등 백 교수는 꾸준한 연구 활동이 인정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남전 광주향교 제28대 전교 당선

김남전씨가 광주향교 제28대 전교에 당선됐다. 18일 광주향교는 광주향교는 지난 15일 유림회관에서 열린 유림총회에서 광주향교 차석장의 등을 역임한 김씨가 신임 전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전남대 상과대(경제학)를 졸업했으며, 40여 년간 전남대 사범부 부속중,

문홍중, 광주시 교육연수원,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근무했다. 2004년 광주향교에 몸을 담은 이후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회장, 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운영위원, 교육위원장, 시본부 부회장, 광주유교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등 중책을 맡아왔다. 김 당선인은 “경선으로 갈라진 유림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운영의 공개로 투명한 향교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사업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

- 232-1313.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습관성도박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

- 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지역아동센터광주지회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2-363-2963.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부음

- ▲임기석(세례명 아오스딩, 전 신협중앙회장, 광주가톨릭대 교수)씨 별세 임원섭·모니카(교포산본중 교사)·테라사(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변호사)·애나·의진(강강술루선 대표) 부친상 윤영현(남양부직포주 연구소장)·박성규(서울행정지원부장관)·김용찬(오케이지과 병원장)·이재중(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방부상=발인 19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정원씨씨 별세 정병수·희숙·영자·영희·영순씨 부친상 조속차씨 시부상 박동훈·김철성·김정오·김민철씨 방부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朴善주 님(여/85세) 子/子婦 : 주상하 / 최관길/안 용, 관순 女/婿 : 안필호, 주영미/김진호, 주영선/최재원 主친회/조친회 *발 인 : 12월 19일 *장 지 : 화순읍 주도리 선영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차순녀 님(여/58세) 女/婿 : 최관길/안 용, 관순 孫 : 안재순, 소연, 지예, 지은 *발 인 : 12월 20일 *장 지 : 영랑공원 *연락처 : 227-4314
101호 故김순영 님(여/78세) 子/子婦 : 최현성/최인숙 女/婿 : 최미리/이동민 *발 인 : 12월 20일 *장 지 : 영랑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이영숙 님(여/78세) 子/子婦 : 최동훈/박미숙, 동식/주선희 女/婿 : 최미숙/양성문 *발 인 : 12월 20일 *장 지 : 영랑공원 *연락처 : 227-4385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062-227-4000
금호 장례식장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